

성, 형제수, 출생순위 및 형제 성 구성에 따른 아동의 사회성

Child's Sociability as a Function of Sex of Child, Number and Sex of Sibling, and Birth Order

박 성 연*
Park, Seong Yeon
도 현 심**
Doh, Hyun Sim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children's sociability as a function of sex of child, number and sex of sibling, and birth order. Children's responses were compared with mothers' responses on social participation and interpersonal adjustment. Subjects were 506 4th and 5th grade children and their mothers.

Results showed that mothers' perceptions of their child's sociability wer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children. 'Number of sibling' differences between only children and others were found, with onlies being most likely to show lower scores in interpersonal adjustment. Sex differences in sociability were clearly demonstrated by both children and mothers; that is, boy's interpersonal adjustment scores were lower than girls' scores. Two-way ANOVA data revealed that second-born boys and first-born girls were most likely to obtain higher scores. For siblings, elder sisters showed the highest interpersonal adjustment scores, regardless of sex of younger sibling.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래전부터 가족의 크기나 아동의 출생순위는 아동 연구자들의 끊임없는 관심거리가 되어왔으며, 이러한 변인들은 아동의 여러 발달적 측면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인들로 가정되어 왔다. 더욱이 최근에 이르러는 한자녀

가족이 증가하고 있고 두자녀 가족이 보편화됨에 따라 과거의 연구와는 달리 가족의 크기나 출생순위 자체보다는 형제유무 또는 형제의 성 구성 형태가 더욱 중요한 변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외동이 연구를 중심으로 한 대개의 연구들은 형제유무나 형제의 성 구성 형태가 부모

*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자녀관계나 형제 관계의 양과 질에 차이를 가져오므로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Falbo & Poston, 1993), 외동이와 다자녀의 지적, 인성적 발달에 관한 비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국내외 연구들을 고찰해 보면 형제수나 출생순위에 따른 사회적 적응이나 인성에서의 발달적 차이를 밝히는데 있어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기가 힘들다(Falbo & Poston, 1993; 박성연, 1990).

이와같은 연구간의 불일치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방법론적인 문제점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사회성의 개념정의나 측정내용에서의 문제이다. 즉 국내 연구들은 특히 연구자의 관심에 따라 사회적 발달을 인성의 한 측면인 사회성 또는 사교성으로 연구하기도 하고 사회성숙도 내지는 사회적 능력이라는 개념으로 측정하기도 한다. 국외 연구의 경우는 이외에도 인기도, 친구관계양상, 집단 활동이나 혼자하는 활동에 보내는 시간이나 태도 등으로 측정한다. 이와같은 개념상의 혼란은 자칫 독자로 하여금 연구결과들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하게 하며 나아가 사회적인 관심이나 태도가 곧 사회적 적응 능력인 것으로 파악하는 사회적 발달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낳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보면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일에 별 관심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사회에서 기대되는 역할이나 행동을 수행할 능력이 낮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제기된다.

둘째, 연구 대상 아동의 특성과 관련된 문제이다. 가장 빈번한 문제로서 형제자매가 있는 외딸이나 외아들을 합쳐서 외동이로 구분한다든지(김제한, 1984; 우희정, 1983), BI-

ake(1981)가 지적하였듯이 만이를 외동이와 같은 집단으로 분류함으로써 결과 해석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자녀수나 가족의 크기에서도 기준이 달라, 한자녀와 다자녀 비교에서 다자녀를 2명의 아동으로 국한 한다든지(Claudy, Farrell & Dayton, 1979; 송나리·박성연, 1993) 또는 수의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Doby, Levin & Mitra, 1980; 우희정, 1983; 김숙경, 1989)가 있어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또한 형제유무나 출생순위에 관한 연구에 비해 성 구성 형태에 따른 차이를 연구한 경우는 드물다.

셋째, 평가자의 지각차에 의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국내 연구를 고찰해 본 바로는 주로 사회성숙도나 사회적 능력은 교사나 부모가 평가하며 사교성과 같은 인성적 특성은 자기 보고식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인기도나 사회적 행동은 또래 평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결국 Falbo와 Polit(1986)가 사용된 연구 방법에 따른 사회성 연구결과의 차이를 지적하였듯이, 사회적 발달의 어떤 측면을 누가 평가하였는가에 따라 다른 연구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문제를 경험적으로 입증한 연구는 거의 찾을 수 없었다.

위와 같은 세가지 문제점들을 고려해 볼때 사회적 발달 연구는 사회적 관심이나 사회적 적응 측면을 분리된 과정으로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출생순위 및 형제수, 형제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사회성의 한 측면을 동시에 두 평가자가 평가함으로써 그 차이를 입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근거로 본 연구는 형제수, 출생순위, 형제 성 구성에 따른 아동의 사회성의 차이를 보다 명확히 규명해 보는데 목적을 두고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

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아동이 지각하는 자신의 사회성(사회성 참여도와 대인 적응력)과 어머니가 지각하는 자녀의 사회성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아동의 사회적 참여도와 대인 적응력은 아동의 성, 형제수, 출생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아동의 사회적 참여도와 대인 적응력은 형제 성 구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Ⅱ. 선행 연구의 고찰

1. 사회성의 개념 정의

사회적 발달에 관한 연구들은 사회성과 사회성숙도, 또는 사회적 능력에 관한 연구로 대별될 수 있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사회성(sociability)이란 혼자 있기 보다는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더 좋아하는 성향으로 정의함으로써(Buss & Plomin, 1984; Cheek & Buss, 1981) 사회적 관심이나 사교성의 정도를 연구한다. 한편 이러한 보편적인 개념 외에도 사회성 발달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대인관계에서 긍정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태도의 성숙정도인 사회성숙도나 보다 포괄적인 의미의 사회적 능력(social competence)이라는 개념이 쓰이기도 한다. 사회적 능력의 개념은 보다 다양해서 부모나 교사 또래 등의 사회적 대상을 포함하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상호작용이나 대인관계를 하는 능력(Ford, 1982; O' Malley, 1977)을 뜻하기도 하고, 책임감이나 독립성, 내·외향성등의 인성적 구조를 강조하거나(Baumrind, 1973) 환경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능력이나 문제인식, 문제해결력을 포함하

는 광의의 적응개념(Zigler & Trikett, 1978)을 뜻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회성이 잘 발달되어 있다』 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때는 사회적 관심이나 참여 태도 뿐 아니라 대인관계에서의 적응 능력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발달을 연구하려면 Hurlock (1978)이 주장한 두가지 사회성 발달 과정, 즉 자기가 속한 사회의 사람이나 사회적 행동을 좋아하는 사회적 관심이나 태도를 발달시키는 과정과 사회적인 기대에 부합되도록 행동하는 능력을 획득하는 과정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물론 이 두과정의 균형적 관계가 중요하기는 하나 앞서 지적하였듯이 사회적 관심이나 태도와 대인적응간의 관계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성을 사회적 활동이나 친구와의 관계를 즐기는 사회적 참여도 정도, 대인관계에서의 적응행동으로 정의하고 사회적 참여도와 적응능력을 분리된 과정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2. 평가자에 따른 아동의 사회성

Falbo와 Polit(1986)은 한자녀의 사회성에 관한 문헌들을 종합 고찰한 결과 사회성이 측정된 방법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대체로 또래평가나 자기보고식 평가일 경우 외동이가 다른 순위의 아동보다 낮은 평가를 받으며(Claudy et al., 1979) 교사나 어머니등 어른의 평가에서는 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Doby et al., 1980). 중국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Jiao, Ji와 Jing(1976)은 또래평가에서 외동이

가 형제아보다 자기통제력, 협동력에서 낮고 자기중심성에서 높아 사회성이 낮았으며, 중국아동을 대상으로 교사가 평가한 Falbo 등(1989)의 연구에서는 형제수에 따른 사회성의 차이가 없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자기평가에서는 출생순위에 따른 사회성의 차이가 보고되고 있고(김제한, 1984; 이남기·정복남, 1977) 교사나 어머니평가에 의한 사회적 능력에서는 형제수나 출생순위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었다(김숙경, 1989; 송나리·박성연, 1993).

이와같은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때, 성격특성으로 본 사회성에서는 출생순위나 형제수에 따른 차이가 있고 적응적인 능력으로 본 사회적 능력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또다른 가능성으로는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편견으로 인해(Park, 1981) 아동이 지각한 사회성이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성보다 낮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사회성 측면을 다른 평정자가 평가한 바를 비교한 연구가 없으므로 위의 두가지 가능성중 어느것이 옳은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얻을 수 없다.

3. 성, 형제수, 출생순위 및 형제 성 구성에 따른 아동의 사회성

1) 성

일반적으로 아동은 부모에 의해 성에 따라 다르게 사회화되기 때문에 그 발달적 결과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여아가 남아보다 사회성이 높다고 보고한 연구들(김제한, 1984; 서동주, 1988; Falbo & Poston,

1993)과 함께 아동의 사회적 능력이나 수줍음, 사회성에서 성차가 없음을 보고한 연구들(김숙경, 1989; 도현심·박성연, 1992; 송나리·박성연, 1993; 차춘희, 1983)이 있어 일관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 대체로 보아 사회적 능력연구, 특히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성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나, 여아가 사회 규범적인 행동(예; 책임감, 친절, 애정등)에 보다 쉽게 사회화됨을 시사하는 결과도 볼 수 있다(Falbo & Poston, 1993).

2) 형제수, 출생순위, 형제 성 구성

형제수나 출생순위에 따른 사회적 발달 역시 몇가지 불일치한 결과들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한자녀와 맏이는 둘째 이하의 자녀와 차이를 나타낸다는 결과가 있다. 그러나 그 방향은 두가지로 다르다. 즉, 유아의 경우 한자녀와 맏이는 부모와의 빈번한 접촉으로 인해 둘째 이하의 자녀들보다 높은 사회성을 나타낸다는 결과와(Snow, Jacklin & Maccoby, 1981; 이성진·이기우, 1986) 그 반대로 둘째 이하의 자녀들이 또래관계의 경험이 많으므로 한자녀나 맏이보다 높은 사회성을 나타낸다는 결과가 있다(Claudy et al., 1979; 김제한, 1984; 이남기·정복남, 1977). 특히 Nuttall과 Nuttall(1975)는 다자녀 가정중에서도 두자녀 가정의 아동이 가장 사회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송나리·박성연(1993)에 의하면 유치원 연령에서는 형제유무나 출생순위에 따른 사회적 능력의 차이가 없었으나 국민학교 5학년 아동의 경우는 외동이가 맏이나 둘째보다 유의하게 낮아 형제수와 출생순위의 효과가 연령에 따라 다름을 시사하

였다. 또한 서동주(1988)는 국민학교 남아의 경우는 한자녀가, 여아는 다자녀가 사회성이 높다고 보고하였고 중국 아동을 대상으로 한 Falbo와 Poston(1993)은 자기평가의 경우 남아 외동이만이 만이나 차자에 비해 유의하게 낮게 평가되므로써, 형제수와 출생순위가 성과 상호작용함을 시사하였다. 한편 Falbo와 Polit(1986), Doby 등(1980)은 출생순위나 형제수에 따른 사회성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결론은 국내 연구(박범실, 1986; 김숙경, 1989)에서도 지지된 바 있다.

그러나 형제수에 관한 연구들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한자녀와의 비교에서 두자녀까지 비교하였으나, 세자녀 이상 집단도 비교하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Claudy 등(1979)의 연구에서 형제아가 외동보다 유의하게 사회적 참여가 높고 Doby와 동료(1980)의 연구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던 점은 Claudy 등의 연구에서는 비교집단이 두자녀 집단이었고 Doby의 경우는 형제수에 제한이 없었던데 기인할 수도 있다고 해석되고 있어 두자녀와의 차이와 세자녀 이상과의 차이가 다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형제구성에 따른 사회성 연구는 주로 형제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연구된 바 있고(김상희, 1990; 민경희, 1990)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사회성의 차이를 연구한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위의 이론적 고찰을 종합해 볼때 사회성 발달 연구는 측정된 내용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냈고, 평가자에 따라서도 다른 결과가 제시되고 있어 동시에 한연구에서 사회성의 두 가지 측면을 다른 평가자에 의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순히 외동이나 형제아의 비

교, 또는 출생순위나 형제수의 비교에 그치고 있어 현재 우리나라에서 두자녀가 보편적인 가족형태인 점에 비추어 볼때 두형제간의 성 구성에 따른 사회성의 차이와 성 및 출생순위의 상호작용 효과를 규명해 봄으로써 아동간의 사회성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아동의 사회적 발달은 사회계층과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중류계층 가정의 4, 5학년 아동으로 국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류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아파트 지역에 위치한 과천시 소재 국민학교 4, 5학년 아동 총 506명과 그 어머니들을 표집하여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아동의 부모의 교육정도 및 아버지의 직업분포 조사결과 연구대상 아동의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대졸이 57%,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고졸이 45%로 가장 높았고 아버지의 직업분포는 자영 상공인과 회사원이 68%로 나타나 본 연구대상자를 중류층으로 보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대상아동의 성별 분포는 남아가 48%, 여아가 52%였다. 출생순위 별로는 외동이가 51명, 만이가 191명, 둘째가 159명, 셋째 이상이 105명이었다.

2. 조사도구

아동의 사회성 측정을 위한 조사도구는 질문지로서 연구자가 Hurlock(1978)의 정의를

토대로 Buss와 Plomin(1984), Cheek과 Buss(1981), 국내 연구들에서 사용된 문항을 참고로 하여 제작한 『국민학교 고학년용 사회성 조사 척도』이다. 이 척도는 총 27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고 어머니용과 아동용이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어머니용에만 일반적 사항을 묻는 10개 문항이 추가되었다.

사회성 조사 척도는 「사회적 참여태도」에 관한 문항 14개와(예;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한다”, “다른 아이들에 비해 친구들이 많다”) 대인적응성에 관한 문항 13개(예; “친구들과 놀다가 화를 잘 낸다”, “사람들에게 다정하게 대해준다” 등)로 구성되어 있으며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 평정하는 Likert형 척도로서 총점수 범위는 27-135점까지이며 사회적 참여도는 14-70점, 대인적응성은 13-65점의 범위이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α 로 산출된 척도의 신뢰도는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참여도와 대인적응력이 각각 .86, .76(총 α =.88),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참여도와 대인적응력이 각각 .89, .79(총 α =.87)이다.

3. 조사 절차 및 분석

본 연구자가 제작한 39개 문항의 사회성 척도는 1992년 10월 1, 2차 예비조사에 걸쳐 문항을 검토 수정하였다.

국민학교 4, 5학년 아동-어머니 190쌍을 대상으로 한 2차 예비조사에서 아동용과 어머니용 각각에 대해 주성분분석과 Varimax 회전 방식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Eigen치를 기준으로 한 Scree Test를 통해 어머니용과 아동용에서 공동으로 2개 요인

을 추출하였고 이 두요인은 각각 「사회적 참여도」와 「대인적응력」으로 명명되었으며 최종적으로 27개 문항이 포함되었다.

본 조사는 1992년 12월 초에 실시되었으며 교사를 통해 600명의 아동에게 질문지를 배부한 후 그 자리에서 회수하고 어머니용은 아동을 통해 배부한후 다음날 회수하였다. 질문지의 회수율은 92%였으며, 부적절한 질문지를 제외한 506부가 분석대상이 되었다. 자료의 분석은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빈도, 백분율, 평균을 산출하고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의 분석을 위해서는 Paired t 검증, 이원 변량 분석, 삼원 변량 분석 및 일원 변량 분석과 Duncan 추후 검증을 실시하였다. 모든 유의도 검증은 $p=.05$ 이하에서 이루어졌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아동 자신이 지각한 아동의 사회성과 어머니가 지각한 아동의 사회성

아동과 어머니의 지각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전체 대상자중 아동-어머니 쌍으로 분석될 수 있는 자료 411부에 대해 paired t 검증을 한 결과 총점에 있어 아동이($\bar{X}=104.09$) 어머니($\bar{X}=101.0$)보다 자신의 사회성을 유의하게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4.53, p=.000$). 그러나 요인별로 볼때는 사회적 참여도에서만 아동이 어머니보다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ar{X}=55.2$ vs. $\bar{X}=52.4, t=6.56, p=.000$) 대인적응성에서는 아동($\bar{X}=48.5$)과 어머니($\bar{X}=48.3$)간에 지각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체로 어머니는 자식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다른 평가자보다 높은 평가를 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아동의 사회적 관심도를 아동보다 낮게 지각하고 있는 결과가 나타난 것은 친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연령의 아동에게 개인적인 태도를 묻는 사회적 참여도 척도의 내용상의 특성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연구문제 1에 대한 보다 자세한 검토는 연구문제 2와 3인 자녀수, 성, 출생순위, 형제수 구성에 따른 아동 지각과 어머니 지각을 따로 분석함으로써 이루어질 것이다.

2. 자녀수, 아동의 성, 출생순위에 따른 사회적 참여도와 대인적응성

1) 자녀수(한자녀, 두자녀, 세자녀이상)에 따른 사회성

사회성 총점이나 어머니가 지각한 경우에는 사회적 참여도나 대인 적응 모두에서 자녀수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아동이 지각한 경우는 대인 적응 요인에서 차이를 보여 한자녀 집단 아동이 두자녀나 세자녀 이상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대인 적응을 나타냈다.(표 1 참조) 이와같은 결과는 자기 보고식 평가에서 한자녀의 사회성이 낮았던 Caludy등(1979)과 이남기·정복남(1977)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교사평가에서 형제수에 따른 사회성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던 Meredith, Abbott 와 Lu(1989)나 Falbo등(1989)의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송나리·박성연(1993)에 의하면, 교사가 평가한 사회적 능력에서는 대체로 유아의 경우 한자녀와 두자녀의 차이가 없었으나 국민학교 5학년

에서는 다소 차이가 난 것으로 보아 형제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5학년이라는 대상아동의 연령에 따른 차이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두자녀 집단과 세자녀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아 다자녀 가정 중에서도 두자녀 가정의 아동이 가장 높은 사회성을 보인다는 결과(Nuttall & Nuttall, 1975)와 다르다. 이로 보아 아동의 사회성은 단순한 형제수 보다는 성별이 더 중요한 영향변인임을 시사받을 수 있다.

〈표 1〉 자녀수에 따른 아동의 사회성 평균

자녀수	N	사회적 참여도		대인적응	
		아동지각	어머니지각	아동지각	어머니지각
한자녀	51	53.4	53.6	46.3	46.9
두자녀	350	55.2	52.3	48.5	48.8
세자녀이상	105	55.8	52.2	47.6	48.0
F		1.14	1.0	3.06*	1.17

*P<.05

2) 성 및 출생순위에 따른 아동의 사회성

출생순위를 외동이, 맏이, 둘째, 셋째 이하로 나누고 성(2)×출생순위(4) 이원 변량 분석 결과 아동지각의 경우 사회적 참여도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대인적응에서는 성 및 출생 순위에 따른 주효과(각각 F=7.301 p=.007, F=3.469 p=.016)와 성과 출생순위의 상호작용효과(F=3.073 p=.027)가 나타났다.(표 2참조) 즉, 남아가(\bar{X} =47.4) 여아(\bar{X} =49.0)보다 p<.01 수준(t=-.027)에서 유의하게 낮은 적응 점수를 나타냈으며, Duncan Multiple Range 검증에 의하면 외동이 집단이 맏이나 둘째 집단에 비해 특히 낮은 적응 점수를 나타내 맏이와 외동이의 사회성을 같은 수준으로 보는 결과(Snow et al., 1981; 이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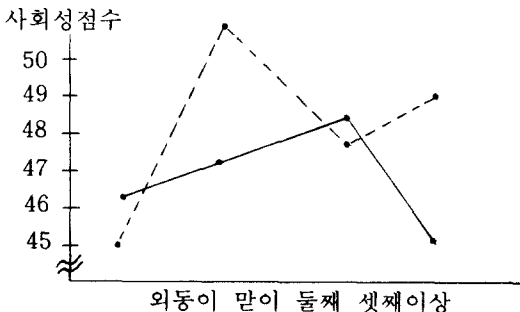
기·정복남, 1977)와 다르다. 또한 <그림 1>에서 보듯이 남아의 경우는 둘째가 가장 높은 적응을 보이고 딸이, 외동이, 셋째 이하의 순인데 비해, 여아는 딸이, 셋째 이하, 둘째, 외동이의 순으로 나타나 성에 따라 출생순위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와같은 결과는 중국아동의 경우 남자 외동이만이 딸이나 차자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성격특성을 보였던 Falbo와 Poston(1993)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것이다. 위와 같은 결과들로 보아, 같은 동양 문화권이라도 아동의 대인 적응도는 사회 전반에 걸친 분위기에 따라 다르며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시사 받을 수 있다.

<표 2> 아동이 지각한 대인 적응성에 대한 이원 변량 분석

변량원	SS	DF	MS	F
성(A)	300.501	1	300.501	7.301**
출생순위(B)	428.306	3	142.769	3.469*
A×B	379.404	3	126.468	3.073*
오 차	20496.484	498	41.158	
전 체	21616.316	505	42.805	

*p<.05 **p<.01

<그림 1> 성과 출생순위에 따른 아동의 대인 적응성(아동지각)



한편 어머니가 지각한 경우에는 아동이 지각한 경우와는 달리 사회적 참여도에서 출생순위에 의한 주효과가 나타났다($F=2.877, p=.036$) (표 3참조). Duncan 사후 검증 결과 둘째가 ($\bar{X}=53.9$) 딸이 ($\bar{X}=51.4$)나 셋째 ($\bar{X}=51.5$)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사회적 참여도를 나타냈고, 외동이($\bar{X}=53.5$)와는 유의한 차이가 없어, 외동이의 어머니는 외동이 자신보다 아동의 사회성을 높게 평가한다는 (Falbo & Polit, 1986) 주장을 지지한다.

한편 어머니가 지각한 아동의 대인 적응에서는 아동지각과 마찬가지로 성에 따른 주효과가 나타나($F=5.265, p=.02$) 남아 ($\bar{X}=47.6$)보다 여아 ($\bar{X}=49.0$)가 높은 적응 점수를 나타냈다(표 4 참조). 그러나 성과 출생순위

<표 3>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참여도에 대한 이원 변량 분석

변량원	SS	DF	MS	F
성(A)	.872	1	.872	.014
출생순위(B)	552.621	3	184.207	2.877*
A×B	59.447	3	19.816	.309
오 차	26829.362	419	64.032	
전 체	27444.393	426	64.423	

*p<.05

<표 4> 어머니가 지각한 대인적응에 대한 이원 변량 분석

변량원	SS	DF	MS	F
성(A)	203.745	1	203.745	5.265*
출생순위(B)	219.361	3	73.120	1.890
A×B	12.261	3	4.087	.106
오 차	16948.163	438	38.694	
전 체	17385.202	445	39.068	

*p<.05

에 따른 상호작용의 효과는 없었다.

3. 형제 성 구성에 따른 아동의 사회성

연구문제 2에서 성과 출생순위에 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사회성에 있어 형제구성에 따른 집단간의 차이가 예측된다. 또한 우리나라 가족의 경우 자녀수가 들인 경우가 보편적이기 때문에 두자녀 가족(N=350)만을 성(2)×출생순위(2)×형제의 성(2)에 따른 삼원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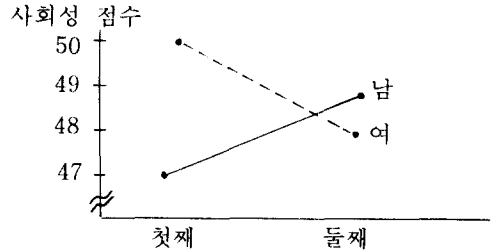
그 결과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참여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대인적응에서만 성의 주효과(F=3.778, p<.053) 및 성과 출생순위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F=3.971, p<.047). 즉 두형제아에 있어 여아가 $\bar{X}=49.4$ 남아 $\bar{X}=48.1$ 보다 적응이 높았으며, 남아의 경우는 첫째 $\bar{X}=47.7$ 보다 둘째 $\bar{X}=48.4$ 가 여아의 경우는 둘째 $\bar{X}=48.2$ 보다 첫째 $\bar{X}=50.3$ 가 높은 적응점수를 나타냈다(표 5, 그림 2참조).

〈표 5〉 아동이 지각한 대인적응성에 대한 삼원 변량 분석

변량원	SS	DF	MS	F
성(A)	156.643	1	156.643	3.778*
출생순위(B)	38.625	1	38.625	.932
형제의성(C)	28.321	1	28.321	.683
A×B	164.655	1	164.655	3.971*
A×C	12.081	1	12.081	.291
B×C	8.945	1	8.945	.216
A×B×C	140.629	1	140.629	3.392
오차	14179.458	342	41.460	
전체	14734.689	349	42.220	

*p<.05

〈그림 2〉 성과 출생순위에 따른 아동의 대인적응성(아동지각)



한편 p=.05 유의수준에는 다소 못미치나 어느 정도의 형제구성의 효과가 나타나 일원 변량 분석(F=2.124, p.04)과 Duncan 사후검증을 하였다. 〈표 6〉에서 나타나듯이 형제구성 8가지의 경우에서 여동생을 둔 남아와 오빠를 둔 여아가 가장 낮은 적응 점수를 나타냈고, 남자 형제로만 구성된 경우가 그 다음이었으며, 동생을 둔 누나나 언니가 가장 적응 점수가 높았다. 특히 남동생을 둔 여아와 여동생을 둔 여아가 여동생을 둔 남아나 오빠를 둔 여아보다 유의하게 높은 적응 점수를 보였다.

〈표 6〉 형제 구성에 따른 대인적응(아동지각)

형제구성	N	Mean	SD	F	Duncan
남 여	44	46.9	6.04	2.124*	B
남 여	38	47.1	6.14		B
남 남	44	48.1	5.36		AB
남 남	51	48.1	7.29		AB
여 남	45	48.5	5.57		AB
여 여	32	49.8	6.27		AB
여 여	38	50.3	7.61		A
여 남	58	50.6	6.67		A
전체	350	48.7			

주: √ 표시는 평가대상아동임 *p<.05

참고로 외동이 남아 집단과 외동이 여아 집단, 세명 이상 집단을 포함시켜 본 결과 역시 유의한 차이를 보여($F=2.429, p=.008$) 외동이 여아가 가장 낮고 다음이 외동이 남아였으며 세 형제이상은 중간 정도였고 여아-여아든, 여아-남아든 윗 형제가 여아인 경우가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한편 형제아의 어머니들은 출생순위에 따라 사회적 참여도를 다르게 지각하고 있어($F=7.27, p=.007$) 맏이가($\bar{X}=51.4$) 둘째($\bar{X}=53.9$)보다 낮은 참여도 점수를 나타냈으며 대인적응에서는 성에 따른 차이만 나타나($F=4.34, p=.038$) 여아가($\bar{X}=49.5$) 남아($\bar{X}=48.1$)보다 높은 적응 점수를 나타냈다. 그러나 사회성의 두 측면 모두 삼원 변량 분석에서 상호 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아 어머니가 지각한 경우에는 형제간 성 구성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V.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성, 형제수, 출생순위에 따른 아동의 사회성 연구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시도되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사회성 연구와는 달리 사회성 발달을 사회적 관심이나 참여도 측면과 대인적응 측면으로 분리하여 아동과 어머니의 지각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두 자녀 가족을 따로 분석하여 형제간 성 구성에 따른 사회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주요 결과들을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독립변인들을 고려하지 않고 볼때, 전체적으로 아동의 사회성에 대한 지각은 어머니와 아동간에 차이가 있어 아동이 어머니보다

사회적 참여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대인적응력에 있어서는 어머니와 아동이 거의 같게 평가하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아동의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이 아동의 지각보다 호의적이라는(Falbo & Polit, 1986; Park, 1981) 견해를 모든 발달 영역에 일반화시킬 수 없으며, 평가자간의 지각의 차이는 측정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연구문제 2와 3을 요약해 볼때, 아동이 지각한 경우가 어머니가 지각한 경우보다 형제수나 출생순위에 의한 차이가 큰것으로 보아, 어머니 평가를 사용할 경우는 이들 변인들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외동이 어머니는 특히 다자녀 어머니와 지각의 차이를 거의 보이지 않는 반면 외동이 아동은 다자녀 아동보다 사회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어 외동이 어머니는 아동 자신보다 아동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Falbo와 Polit(1987)의 견해를 지지한다. 따라서 연구들간의 불일치는 측정된 사회성 측면과 동시에 평가자가 다른데 근거할 가능성이 크다.

2. 형제수에 따른 사회성의 차이는 아동이 지각한 대인적응력에서만 나타나 한자녀 집단 아동이 두자녀나 세자녀 집단 아동보다 낮은 적응능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성격검사로 측정된 사회성 연구에서 주로 나타났던 외동이의 사회성은 사회적인 관심이나 참여보다는 적응측면이라고 해석된다. 이러한 논리로 볼때, 역시 적응측면을 재고 있는 사회적 능력 연구에서는 외동이와 형제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는 사회적 능력이 주로 어머니에 의해 평가되었다는데 기인할 수도 있다.

한편, 사회성 발달에 있어 단순한 형제수의 의미보다는 아동의 성이 더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한다.

3. 예측한 대로 아동의 사회성은 아동의 성 및 출생순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즉 아동이 지각한 경우에는 대인 적응에서만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 남아가 여아보다 낮은 적응점수를 나타냈으며, 외동이 특히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또한 남아의 경우는 둘째가, 여아의 경우는 맏이가 가장 높은 적응점수를 보이고 있고, 셋째 이하의 남아와 외동이 여아가 가장 낮은 적응점수를 나타내고 있어 부모의 사회화나 형제간의 상호작용이 성에 따라 다르기(김상희, 1990)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어머니가 지각한 경우에는 아동의 지각과는 달리 사회적 참여도에서 출생순위에 의한 차이가 나타나 둘째 아동이 가장 높은 사회적 참여를 보였다. 또한 대인 적응력은 아동 지각과 마찬가지로 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 아동 자신이 지각한 바와 같이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적응력을 보인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아동이 지각한 경우와는 달리 성과 출생순위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4. 두자녀 집단만을 대상으로 형제간 성 구성에 따른 사회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아동이 지각한 대인 적응력에서만 차이를 보여 동생의 성과 관계 없이 윗형제인 여아의 적응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혼성 집단의 오빠와 여동생의 적응 점수가 가장 낮았다. 또 전체 집단을 비교해 보았을 때는 외동이 집단이 가장 낮고 남자 형제 집단이 중간 정도이며, 여아가 위인 형제 구성에서 아동의 적응력이 높아 형제 성 구성에 따른 부모의 사회화의 효

과 및 형제의 영향력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종합해 볼때, 사회성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과 아동의 지각은 다르며, 특히 대인 적응에 대한 지각에서 형제수나 출생순위, 형제 구성에 따른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차가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성 발달 연구결과에서의 불일치는 대상 아동 연령은 물론 측정 도구의 관점에서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이 지각한 대인 적응에서 성과 출생순위, 형제 구성은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변인임이 입증되었으며, 한자녀의 사회성은 적어도 대인 적응력에서만은 낮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 인구학적 변인의 영향력보다는 부모 자녀간 상호작용의 본질이나 양이 사회적 발달에 더욱 중요한 예측 변인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는 보다 발전적인 견지에서 해석되고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한자녀의 표집수가 충분치 못했고,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계층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할 수 없었던 제한점이 있다. 또한 사회적 행동에 있어 성숙과 가족 크기와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송나리·박성연, 1993; Falbo, 1982) 아동의 연령은 중요 변인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국민학교 고학년에만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한자녀 연구나, 가족 크기, 출생순위에 관한 연구들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성의 개념이나 측정 방법등에 착안하여 사회성 발달을 이해하려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특히 형제간 성구성에 따른 사회성의 차이를 밝혀봄으로써 현대 사회의 보편적인

가족 형태인 두자녀 가족 아동의 발달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인구학적 변인에 대한 결과를 기초로 한자녀 가족과 두자녀 가족 아동의 사회성 발달을 설명할 수 있는 과정 변인들, 예를 들어 어머니-자녀 관계나, 형제관계, 또는 어머니 기질, 아동의 기질 등을 포함한 사회성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참 고 문 헌

- 김상희. (1990). 형제간 및 또래간 사회성에 영향을 주는 가족 인구학적 변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숙경. (1989). 외동이와 형제아의 모자녀 관계 및 사회성에 관한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제한. (1984). 출생순위에 따른 성격차에 대한 일 연구. 서울교대 논문집, 제17호, 491-512.
- 도현심, 박성연. (1992). 한국 아동의 수줍음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39권, 1호, 325-338.
- 민경희. (1990). 도시-농촌에서의 형제자매 관계 성격 비교. 가족학 논집, 제2집, 91-133.
- 박법실. (1986).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그 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성연. (1990). 외동이 발달에 관한 고찰. 이화 가정학 60주년 기념 교수 논문집 (이화여자대학교 가정대학편), 75-94.
- 서동주. (1988). 형제수와 아동의 성격특성간의 상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송나리, 박성연. (1993). 외동이의 사회적 능력 및 인지 능력 발달에 관한 연구. 한국 아동학회지, 14(1), 91-107.
- 우희정. (1983). 독자의 성격과 가족환경과의 관계 조사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남기, 정복남. (1977). 외동이의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논문집, 제16호, 11-18.
- 이성진, 이기우. (1986). 한자녀 가정에 대한 조사연구. 서울; 대한가족계획협회, 9-55.
- 차춘희. (1983). 부 부재와 모-자 상호작용의 질이 유치원 아동의 지적 발달과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Baumrind, D. (1973). The development of instrumental competence through socialization. In A. D. Pick (Ed.),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Minneapolis: Univ. of Minnesota Press, 7, 3-46.
- Blake, J. (1981). The only child in America: Prejudice versus performanc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 43-54.
- Buss, A. H., & Plomin, R. (1984).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ide, N. 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Cheek, J. M., & Buss, A. H. (1981). Shyness and socia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330-339.

- Claudy, J. G., Farrell, W. S., & Dayton, C. W. (1979). The consequences of being an only child: An analysis of Project Talent data. Palo Alto, CA: American Institutes for Research.
- Doby, J. T., Levin, M. L., & Mitra, S. (1980). An empirical investigation into the intellectual,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consequences of being reared an only child. Final Report. Atlanta: Emory University.
- Falbo, T. (1982). The one-child family in the United States; Research issues and results. Studies in Family Planning, 13, 212-215.
- Falbo, T. & Polit, D. F. (1986). Quantitative review of the only child literature: Research evidence and theory development. Psychological Bulletin, 100(2), 176-189.
- Falbo, T., Poston, D. L., Ji, G., Jing, Q., Wang, S., Gu, Q., Yin, H. & Liu, Y. (1989). Physical, achievement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Chinese children, Journal of Biosocial Science, 21, 483-495.
- Falbo, T., & Poston, D. L. (1993). The academic, personality and physical outcomes of only children in China. Child Development, 64, 18-35.
- Ford, M. E. (1982). Social cognition and social competence in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18, 323-340.
- Hurlock, E. B. (1978). Child Development 6th ed., Tokyo; McGraw Hill.
- Jiao, S., Ji, G., & Jing, Q. (1986). Comparative study of behavioral qualities of only children and sibli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57, 357-361.
- Medinnus, G. R., & Johnson, R. C. (1969).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Behavior and Development. NY: John Wiley & Sons.
- Meredith, W. H., Abbott, D. A., & Lu, T. Z. (1989). A comparative study of only children and sibling childre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10(4), 251-256.
- Nuttall, R. L., & Nuttall, E. V. (1975). Family size and spacing in the U. S. and Puerto Rico. Chestnut Hill, MA: Boston College.
- O'Malley, J. M. (1977). Research perspective on social competence. Mirrill-Palmer Quarterly, 23, 29-44.
- Park, C. S. (1981). Parental perception of children's compet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Iowa State University.
- Snow, M. E., Jacklin, C. N., & Maccoby, E. E. (1981). Birth-order differences in peer sociability at thirty-three months. Child Development, 52, 589-595.
- Zigler, E., & Trickett, P. K. (1978). I. Q., social competence, and evaluation of early childhood intervention program. American Psychologist, 33, 778-798.